



말 한마디가 씨가 되어 인간 성공에 변화를 준다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인간의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말을 하는 부모나 교사의 적극적인 말 한마디가 씨가 되어 마음속에 각인되어 성장하게 한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긍정적인 말을 하여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어야 하며 부정적인 실패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신부 곁에서 시종하던 소년복사(服事, 교회의 전례 예식에 성직자를 돕는 사람)가 그만 실수해서 성찬례에 사용하는 포도주잔을 앞질러 버렸다. 잔은 깨어지고 포도주가 땅에 쏟아졌다. 신부가 노하여 소년에게 소리를 질렀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되게 나무랐다.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서도 일어났다. 그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내지 않고 말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실수를 많이 했었다. 힘내거라.”라고 하면서 소년을 다독였다. 성당에서 쫓겨났던 소년은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으로 되었고 독재자로 군림했다. 그의 이름은 ‘조셉 브로즈 티토’다. (1953년~1980년까지 28년간 유고슬라비아 통치- 티토주의 창시) 그리고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은 소년은 성장해서 천주교 대주교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폴턴 쉰’ 주교다. (1895 ~1979 미국의 로마 카톨릭 주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에 현명한 말을 하여 부정적인 자극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을 잘하는 학생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자극의 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고 하며 쓰디쓴 말 한마디

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말은 입 밖에 나오기 전에 세 번 생각해서 후회 없는 말을 해야 한다.

인자한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하고, 유쾌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삶의 용기를 준다고 한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한다. 환자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며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한다. 함부로 뱉는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랑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낮게 한다. 한마디 말!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어차피 하는 말, 긍정과 기쁨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자. 긍정적인 희망의 말을 하여 마음속에 각인 되어 말이 씨가 되어 성공하게 해야 한다.

졸업식 때 가정이 가난하여 진학을 못 하는 제자에게 “성화야! 너는 진학은 못 하지만, 꼭 성공할 거야!”라고 말한 담임교사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씨가 되고 각인되어 시련이 있을 때마다 담임교사의 말을 생각하며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한 제자가 42년 만에 담임교사를 찾아와 선물을 주고 간 이야기는 필자가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만남’이란 글에서 밝힌 바 있다. 5월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의 달이다. 교육하는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스승은 자녀와 제자에게 성공의 씨가 되는 긍정적인 사랑의 말을 하여, 말이 씨가 되어 성공의 열매를 맺게 했으면 한다.

양귀비 개화철, 단속용

기고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구별법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5월도 어느덧 중순을 맞이하면서 양귀비가 더욱 화려하게 꽃을 피어낸다. 이로 인해 산책로 등에 피어있는 양귀비를 보고 112신고 또한 급증하는데,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지 않다.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구별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꽃의 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단속용 양귀비는 줄기에 잔털이 없고 매끈한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잔털이 많다. 또, 열매로도 구별이 가능한데, 단속용 양귀비는 크고 둥근 호박형이나 항아리형으로 생겼지만, 관상용 양귀비는 작은 도토리처럼 생겨, 열매 크기 차이가 상당하다.

꽃잎 차이도 있다. 단속용 양귀비는 선명한 붉은색이 주류이고 꽃잎이 크고 넓으며, 가장자리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름다운 관상용 양귀비 안에 숨어있는 단속용 양귀비를 위와 같은 구별 방법을 숙지하여 매의 눈으로 찾아낼 수 있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행락철 교통 안전은

기고

기본, 음주운전은 No!

허정호 순천경찰서 경장



코로나 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다. 전국은 각지에서 여행객이 붐비고 있고 유명한 지역 축제도 다시 부활하였다. 자연스레 다가오는 5월 말 석가탄신일 연휴에는 전국의 사찰을 비롯해 각지의 유명 여행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 종식 이후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은 5대 위반행위인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인 2020년 117,549건에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2022년 11월 120,562건으로 2.47% 상승하였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인 2019년에 130,772건이었다는 점을 보면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음주운전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해진다.

지난 4월 대전에서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자가 나온 충격적인 교통사고도 원인은 음주운전이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인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하였다.

경찰 당국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기법을 바꾸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과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 ‘술 한잔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나와 같이 여행을 나온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계보 (062) 222-2580	광고계보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 폭력, 한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기고

고효범 강진경찰서 수사과 수사팀 순경



“학교폭력 당한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아요.” 계속해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은 한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와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폭력을 포함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영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폭력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려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안전을 상실하게 되어 학업과 사회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어려워 학교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의 학업 성취도를 저하시키고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자해나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에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조치입니다:

- 교육과 인식 제고:**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모두가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상담 지원 시스템 강화:** 학교 내에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익명 신고 체계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 내 교육환경 개선:** 학교 내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내부 갈등 조정 및 해결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생들 간의 존중과 협력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 모든 국민은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라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